

#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가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동형화와 부정적 동형화\*

양우영\*\* 한병섭\*\*\*

목 차	
I. 서론	IV. 연구방법론
II. 문헌연구	V. 분석결과
III. 가설설정	VI. 결론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부패가 제도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도발전과 부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제도 발전에 따른 기업의 순응 행동에서 부패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제도발전 수준, 부패 수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동이다. 분석 대상 국가는 중국이며, 분석은 대상 지역을 중국 내 31개의 성·시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관찰 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이며, 중국 A 시장에 상장된 863개 기업의 4,719개 샘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특히,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제도발전 수준과 기업의 순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게 하여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제도에 반하는 행위는 제도적 제재를 초래하여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SR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6156).

\*\* 제1저자: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동 연구는 기업이 제도적 발전과 부패 수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의 행동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 지역을 중국 31개 성·시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부패 수준에 따른 기업의 대응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순응, 부패, 제도발전, 중국

## I. 서론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은 긍정적 환경과 부정적 환경이 혼재한다. 예를 들어 제도는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Greenwood et al. 2002; Tolbert & Zucker 1999). 반면 부패는 기업들의 국가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Mauro 1995; Uhlenbruck et al. 2006).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 환경에 따라 생존을 위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Oliver 1991). 이러한 환경들은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지방 정부 성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로 반응해야 한다(Knetter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제도’와 ‘부패’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 발전은 기업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최근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조직 행동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적 제약들”(North 1991, 97) 또는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지적, 요소로 구성된 사회적 구조”(Scott 2013)로 정의된다. 제도는 “게임의 법칙”(North 1990, 3)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기술의 변화, 입법, 시장의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며(North 1991; Tolbert & Zucker 1999; Scott 2013), 사회 구성원들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제약하게 된다(Scott 2013).

부패는 기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환경인데(Luo 2005), 제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정책 실무자들에 사이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Mauro 1995; Shleifer & Vishny 1993; Uhlenbruck et al. 2006). 부패 현상은 일반적으로 체제 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Hellman et al. 1999; Spencer & Gomez 2011). 부패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Mauro 1995; Uhlenbruck et al. 2006).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와 부패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Scott 2013), 제도가 발전하면 정부 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진다(Greenwood et al. 2002; Tolbert & Zucker 1999). 그리고 제도가 발전할수록 시장 정보의 신뢰성은 높아지며, 제도의 집행이 투명해지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낮아진다(North 1990; Khanna & Palepu 1997). 제도적 투명성이 증가하면 부패가 감소하게 되며(Luo 2006), 이는 기업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 정보 탐색 및 생산 비용 감소로 나타나 경영활동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North 1990). 따라서 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환경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둘째, 부패 수준은 제도적 환경의 발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Cuervo-Cazurra 2014; Habib & Zurawicki 2001; Stevens et al. 2016). 일반적으로 제도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에 비해 부패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Petrou & Thanos 2014; Spencer & Gomez 2011). 또한 부패는 사회·경제 시스템 내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Habib & Zurawicki 2001; Wei 2000),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Kurtzman et al. 2004). 따라서 부패는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며(Scott 2013), 부패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한다(Collier 2002; Teorell 2007). 그리고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환경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업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제도와 부패가 기업의 행동과 사회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다. 예를 들어 제도의 발전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지만, 부패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뇌물 공여,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주주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이처럼 제도와 부패가 갖는 특성과 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 간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와 부패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제도이론과 이해관계자이론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의 발전과 부패가 서로 상반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때, 기업은 제도적 압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와 부패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이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도 발전에 따른 기업의 대응행동에서 부패 수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째, 제도 발전 수준이 부패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패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선진국과 후진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Barkemeyer et al. 2018; Kouznetsov et al. 2019; Steidlmeier 1999). 하지만 체제전환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과 같이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Petrou & Thanos 2014). 이는 제도 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이 낮고, 법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며, 처벌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제도적 규범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며 열악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Khanna & Palepu 2000; North 1990). 이렇게 제도 발전 수준이 열악한 상태를 ‘제도적 공백 (Institutional Voids)’이라고 하는데(Khanna & Palepu 1997), 제도적 공백은 기업 간 거래의 비효율 및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Chan et al. 2008; Henisz & Zelner 2005). 하지만 제도가 발전하면서 법률의 제정, 투명한 법 집행, 사

회적 규범 확산 등을 통해(Greenwood et al. 2002; Tolbert & Zucker 1999), 시장 정보의 신뢰성은 높아지며, 제도의 집행이 투명해지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낮아진다(North 1990; Khanna & Palepu 1997). 결국 제도 발전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부패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국가 내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이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보았다.

둘째, ‘부패수준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패 수준이 제도발전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정당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며, 일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부패는 경제 성장 저해(Mauro 1995; Murphy et al. 1993), 기업의 직접투자 하락(Deng & Zhang 2018), 공공 생산성 하락(Bardhan 1997; Lambsdorff 2003)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패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패가 기업이나 국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발전과 부패가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제까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제도 연구(Clark et al. 2018; Xie & Li 2018)와 부패 연구(Deng & Zhang 2018; Lambsdorff 2003; Mauro 1995)를 동일 국가 내 지역 단위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국가 단위의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간 제도 환경의 상이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은 영토가 광범위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및 제도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국가 내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이나 부패 수준이 기업의 순응 수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 31개 성·시와 중국 A마켓 상장기업들이다. 중국은 1978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체제전환 국가로, 2023년 말 기준 교역규모 5.9조 달러(수출액 3.38조 달러, 수입액 2.56조 달

러), GDP 17.5조 달러, 외환보유고 3.2조 달러의 글로벌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sup>1)</sup> 중국은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 3위)<sup>2)</sup>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심천, 상해, 천진 등 동·남부 해안의 대도시부터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발전하였기 때문에, 31개 성·시별로 제도발전 및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하고 서부 지역은 아직도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다. 둘째, 중국은 동일 국가 내 지역별 제도발전, 부패, 교육 및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제도발전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을 지역별로 관찰하기에 매우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2006년부터 기업들의 CSR 활동을 기업법에 명시하고 적극적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CSR 활동은 제도로써 성격을 갖고 그 발전 과정을 관찰하기에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른 부패 수준 및 기업들의 대응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문헌연구

### 1. 제도이론

제도이론은 조직의 행동과 구조를 제도적 논쟁에 연결시키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회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론이다(Scott 2013). 제도이론은 주로 계획, 규칙, 규범, 루틴 등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에 의한 절차에 대해 연구하며, 조직 내 갈등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Scott 2004).

제도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기업의 순응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Hillman & Keim 2001; Sarkis et al. 2010; Zhu & Sakis 2007), 제도적 압력이 기업의 정당성 획득에 미치는 영향(Lamin & Zaheer 2012; Mithell et al. 1997), 제도적 압력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구축이 기업의 정당성 획득에 미치는 영향(Kostova et al. 2008) 등과 같이 제도에 대한 조직의 명시적·묵시적 순응

1) 외교통상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www.mofa.go.kr/>. (2024년 9월 15일 검색)

2)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www.kita.net/>. (2024년 9월 15일 검색)

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정당성 획득, 기업의 동형화, 유형·무형의 기업 성과 등 수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Berrone et al. 2013; Kostova et al. 2008).

그리고 국제경영에서 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적 거리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결정 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Clark et al. 2018), 다국적 기업 관점에서 제도적 변화의 추진 요인에 관한 연구(Koning et al. 2018), 모국의 제도 발전 수준과 제도적 거리가 기업들의 수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Xie & Li 2018), 제도적 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기업의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Young et al. 2018), 지역별 제도 수준 및 안정성의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Nguyen et al. 2018; Shi et al. 2017), 제도적 거리가 글로벌 기업의 수출 대상지역 확대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Deng et al. 2018), 규제적 압력과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대상국 내 외국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Wu & Salomon 2017), 제도적 공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Kim & Song 2017; Pinkham & Peng 2017), 지역별 정부의 제도 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Choi et al. 2015) 등과 같이 제도발전 수준이나 제도적 거리가 기업의 행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 언급한 제도이론 관련 연구에서 기업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생성되는 긍정적 압력에 순응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DiMaggio & Powell (1983)에 따르면, 기업은 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도적 압력에 따라 기업들이 긍정적 상황에서 제도에 순응하는 긍정적 형태의 동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기업들이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동형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압력을 긍정적 압력과 부정적 압력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 살펴보았다.

## 2. 부패

부패는 “공적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Shleifer & Vishny

1993)로 정의되며, 이는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포함하는 불법적 금전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부패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도의 발전에 있어 부패는 제도의 효율성 및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패는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에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Gupta et al. 2002). 그리고 부패는 법치주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Susan 1999),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Treisman 2000). 특히 부패는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및 공공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제도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크다(Mauro 1995).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경영 활동의 원활유로써 부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부패는 관료적 지연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기능을 한다(Huntington 1968). 그리고 기업들은 뇌물을 통해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장 진입을 촉진하거나 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Egger & Winner 2006; Méon & Weill 2010). 또한 특정 관료나 정치인과의 유착관계는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거나(Egger & Winner 2006), 불필요한 규제를 회피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경쟁 기업들에 비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Bardhan 2017). 이러한 주장들은 특정 상황에서 부패가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패가 미치는 경제적 비효율성 초래, 사회적 신뢰의 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된다.

따라서 부패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부패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왜곡시켜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한다(Mauro 1995; Shleifer & Vishny 1993). 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보다 정치적 인맥이 있거나 뇌물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더욱 좋은 성과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뇌물은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부패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부패가 기업의 행동과 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 제도, 부패, 그리고 기업의 순응 행동

제도 이론에서 사회적 신념과 제도적 기대는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DiMaggio & Powell 1983; Scott 2013). Rathert(2016)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회와 환경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다양한 원인들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압력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제도이론에서 기업들은 규제, 규범, 문화·인지적 압력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제도적 요구에 순응하게 된다(Oliver 1991; Tian et al. 2015). 결국, 제도이론에서 순응의 개념은 사회적 요구와 압력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Frederick 1994).

다음으로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역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Collier 2002; Teorell 2007). 따라서 부패도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거나 부정한 관행으로써 구성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Kaufmann 1997). 예를 들어 기업들이나 사회구성원들이 부패에 개입될 경우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등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Kaufmann 1997; Murphy et al. 1993). 이는 부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제도적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을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 수준이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순응 행동은 제도이론 측면에서 제도적 압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대부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세부적인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CSR 활동 및 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Tian et al. 2015).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거나 정당성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기업 외부의 부정적 이슈를 반영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환경과 사회·문화·제도적 요구 수준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를 일반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발전 수준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부패라는 부정적 외부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력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들의 순응 행동을 동형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형화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도적 압력에 대해 순응함으로써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원공급 및 생존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업들은 외부의 환경에 노출됨에 있어 긍정적 행동만 하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부패 행위와 같이 부정적 행위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이윤 추구, 생존 가능성, 처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을 긍정적 측면에서의 동형화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은 제도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거나, 동료기업들의 부패관행의 행태를 모방하는 부정적 형태의 동형화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른 기업의 행태를 긍정적 동형화와 부정적 동형화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 Ⅲ. 가설설정

#### 1. 연구가설

##### (1) 제도발전이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31개 성·시별 부패 수준이 각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제

도발전과 부패 수준이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발전과 부패가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동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도의 발전은 부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제도의 발전은 법치주의를 강화시키는데 (Treisman 2000), 이는 법률의 제정, 투명한 법 집행, 사회적 규범 확산 및 정당성 획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Greenwood et al. 2002; Tolbert & Zucker 1999). 법치주의가 강화될수록 정부와 공공 기관의 활동과 감시활동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Rose-Ackerman 1999). 따라서 시장 정보의 신뢰성은 높아지며, 제도의 집행이 공정해지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낮아진다(Khanna & Palepu 1997; North 1990). 이렇게 제도가 투명해지고 집행이 공정해지면 부패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Luo 2006).

Shleifer & Vishny(1993)에 따르면 제도적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 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유 시장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성 향상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경제적 규제 완화 및 공무원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Kaufmann et al.(1999)은 제도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은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이를 감시하고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의 발전은 사회구성원과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수준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제도가 발전할수록 부패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의 발전 수준이 사회적 부패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부패 수준은 제도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 (2) 부패가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제도 발전 수준이 열악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 효율적인 중재기구, 투명한 행정 집행, 효율적인 관료 체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Chan et al. 2008; Khanna & Palepu 2000), 사회적으로 부패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Luo 2006). 기업들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는 기업 주주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Delmas & Montes-Sancho 2010; North 1990). 예를 들어 기업들의 CSR 활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소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며, 이는 주주이익의 감소로 이어진다(*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70/09/13). 하지만 제도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이 제도에 순응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지양하게 된다.

반대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 감시, 관리, 처벌 등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도적 압력을 무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지 상징적(Symbolic) 행동만으로도 정당성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Chan et al. 2008; Delmas & Montes-Sancho 2010; Marquis & Qian 2014; Meyer & Rowan 1977). 따라서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패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상승 시킨다. 부패 활동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직과 사회구성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원활히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상징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상징적 순응 수단으로써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적 공백 상태이거나 부패가 만연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첫째, 기업은 부패한 환경에서 CSR 활동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패에 참여

함으로써 즉각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Cuervo-Cazurra 2006).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당한 수단을 이용해 자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규제를 피하는 것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제도발전 수준이 낮고 부패가 심한 경우, 제도적 압력과 감독 수준이 약해 CSR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범적 압력이 줄어든다(Frynas 2005).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 및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부패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 기업의 CSR 활동이 상징적인 이미지 관리 도구로 인식될 수 있다(Visser 2008). 예를 들어 기업들은 부패에 개입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감추기 위한 그린 와싱(Green Washing)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린 와싱은 기업의 이미지는 개선하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상징적 순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CSR 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게 되고 전략적인 목적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부패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쟁 환경이 왜곡되어, 기업들은 부패를 통해 생존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다(Mauro 1995). 따라서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 목표를 위해 부패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CSR 활동을 꺼리게 된다.

다섯째, 부패 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는 전반적으로 윤리 기준이 낮고, CSR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줄어든다(Rodrigo & Arenas 2008).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CSR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감소시킨다.

결국 부패는 기업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제도에 반항하는 행동은 제도적 처벌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n & Yang 2020; Putrevu et al. 2012). 하지만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 경우, 기업들은 처벌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에 순응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CSR 활동수준을 낮추고,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CSR 활

동수준을 높임으로써 제도적 정당성 확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재무성과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 수준이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부패 수준은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순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도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감시활동과 처벌 수준이 높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해진다. 따라서 제도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부패 수준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위선적 행동을 통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순응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Marquis & Qian 2014).

반대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압력이 강해지더라도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미비하다(Delmas & Montes-Sancho 2010; Marquis & Qian 2014; Meyer & Rowan 1977). 감시나 관리가 형식적이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들이 순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징적 행동만으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순응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도적 압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를 갖는다. 따라서 제도발전 수준이 낮으면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도 낮아지며, 제도의 발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부패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가 발전할수록 기업은 부패에 저항하게 되고, 제도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은 부패에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제도적 공백상태에서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발달

로 제도적 압력이 강한 사회에서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패의 영향은 기업의 속한 국가나 산업, 지역별 부패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패 수준이 높을 경우 제도 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와는 반대로, 기업들은 상징적 CSR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기업들이 진정성 없이 CSR 활동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그린와싱(Green-washing) 등과 같이 실질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 없이 상징적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순응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Gatti et al, 2019). 예를 들어 기업들은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부패에 대한 우려를 회피하거나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CSR이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기업들의 CSR 활동이 진정성 없는 단순한 평판 관리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Gatti et al. 2019; Frynas 2005).

둘째, CSR 활동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규제나 법 집행 능력이 약해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 CSR 활동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uervo-Cazurra 2006).

셋째, CSR의 효율성 및 효과가 저하 된다. Visser(2008)에 따르면 부패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패한 정부와의 협력은 기업의 자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환경에서 상징적 CSR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필요한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Rodrigo & Arenas 2008).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가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은 제도의 발전 수준 및 처벌 수준에 따라 전략적 행동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다. 즉 제도발전 수준이 높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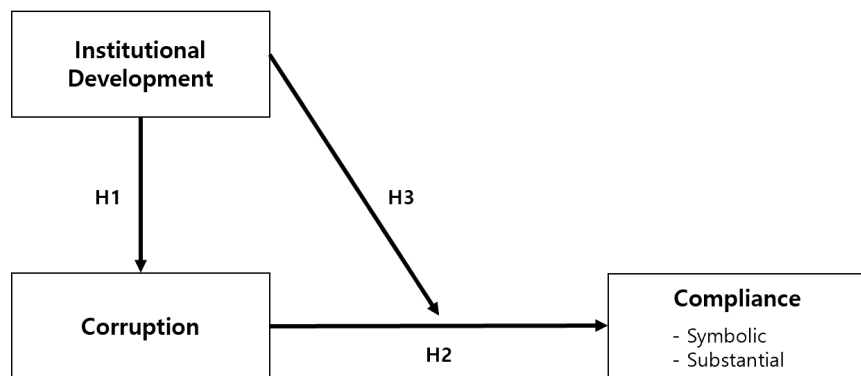
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 기업들은 긍정적 방향으로 동형화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고 부패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부정적 형태의 동형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제도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과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부패 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 때와 제도발전 수준이 낮을 때를 구분하고, 각 수준별 제도의 발전 수준과 부패가 상호작용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3 제도 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 수준이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부패가 기업의 순응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제도의 발전에 따른 기업의 순응 수준에서 부패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도발전과 부패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형



## IV. 연구방법론

###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본 연구는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는 중국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대상 지역을 중국 내 31개 성·시로 세분화 하였다. 분석은 중국 A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측 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이다. 먼저 가설1에서 샘플은 총 2,597개 기업의 8년간 관측자료 14,071개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설2와 가설3에서는 부패 수준에 따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중국 A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데이터 중 CSR 보고서를 작성한 863개 기업의 8년간 총 5,453개 CSR 평가 점수를 추출하여 분석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 2. 주요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는 중국내 31개 성시별 제도 발전 수준, 부패 수준 및 중국내 A마켓 상장기업들의 CSR 활동 수준이다. 먼저 제도 발전 수준은 가설 H1~H3에서 독립 변수로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의 시장화지수(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dex of Marketization: NERIM)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지표는 중국 내 지역별 제도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로 정부 규제의 강도, 고객의 요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물적·인적·금융, 자원의 공급, 시장 투명도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Choi et al. 2015; Fan & Wang 2010).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중국의 시장 제도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Cho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시장 제도화 수준(MKT)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개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부패지수는 가설 H1~H3에서 독립 변수로 글로벌 독립 연구 단

체인 CESifo (Center of Economic Studies) Network의 중국 31개 성·시별 부패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Chen et al. 2018).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의 CSR 점수는 가설 H2~H3에서 종속 변수로 RKS(Rankins CSR Ratings: RKS)의 기업별 CSR 평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RKS는 CASSCSR(Research Cen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CSR 평가기관 중 하나이다. RKS는 2009년부터 중국 A마켓 상장 기업들의 CSR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평가 대상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다. 동 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및 목표 공개 여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관리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 이해관계자 및 지속 가능 발전 관련 데이터 제공 여부, 투명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산업의 특성 반영 여부 등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점수를 발표한다. RKS 점수는 선행연구들에서 기업의 CSR 성과를 반영하는 변수로 자주 사용된다.

가설 H1~H3에서 조절변수는 중국 내 지역별 CSR 관련 뉴스, 국민총생산지수(GDP), 환율, 기업별 총매출, 모회사 지분비율, Tobin's Q 값 등을 사용하였다. 먼저 중국 내 지역별 CSR 관련 뉴스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Baidu)에서 연도별·지역별로 노출된 CSR 뉴스의 개수를 사용하였다. GDP와 환율은 중국의 통계국에서 연도별로 발간하는 통계연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별 총매출, 모회사 지분비율, Tobin's Q 값 등 중국기업들의 개별기업 관련 자료는 중국 CSMAR(The China Stock Market and Accounting Research)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Model 1은 제도발전 수준이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하며,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i$ 기업의  $t-1$ 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부패수준(CPI)이고, 독립변수는 제도발전 수준(MKT)이다. 통제변수는 중국의 지역별 거시 지표 및 개별 기업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환율과 인덱스 점수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값은 자연로그를 취한 후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발전과 기업의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지역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지역 수준 데이터를 해당 지역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하여 회귀 분석하였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수준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면 관측값의 개수가 제한되어 분석력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수준(Firm-level) 데이터를 활용하면 각 지역 내의 기업 수 만큼 관측값이 증가하여 통계적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수준 변수와 기업 수준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기업 간의 이질성을 포함할 수 있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지역 수준과 기업 수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층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또는 지역 고정효과(Regional 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하면,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면서 기업 수준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수준 변수를 기업 데이터에 할당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동일 지역 내 기업들은 동일한 독립변수 값을 가지므로 관측값들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여 동일 지역 내의 관측값 간 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데(Huber 1967; White 1980), 본 연구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 내 간섭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회귀 분석보다 정교한 방법론으로, 지역 수준 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한다(Gelman & Hill 2006). 셋째, 비록 회귀분석이 기업 수준 데이터로 수행되었더라도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지역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분석 결과를 지역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type Unit-root Test(Dickey-fuller Test)를 실시하여 각 변수들의 1차 차분 값에 대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의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공적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패널데이터 간 인과관계 계수 추정량의 편향성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실시하였으며, 동 검증 결과에 따라 패널 회귀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분석(Fixed-effects Regression) 방법을 선택하였다. 고정효과 분석은 자유도 손실이 크에도 불구하고 내생성 문제가 완화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과추론을 하기 위한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모형이다 (Gujarati 2021).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TATA이다.

[Model 1]

$$y_{i,t} = \alpha + \beta_1 MKT_{i,t-1} + \beta_2 \Sigma Control_{i,t-1} + \varepsilon_{i,t-1}$$

Model 2는 지역별 부패 수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CSR)이며, 독립변수는 중국내 31개 성·시별 부패수준(CPI)이다.

[Model 2]

$$y_{i,t} = \alpha + \beta_1 CPI_{i,t-1} + \beta_2 \Sigma MKT_{i,t-1} + \beta_3 \Sigma Control_{i,t-1} + \varepsilon_{i,t-1}$$

Model 3은 중국의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동 모델을 사용하여 중국의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 수준이 기업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CSR)이며, 독립변수는 중국내 31개 성·시별 제도발전 수준(MKT), 부패수준(CPI) 및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MKT×CPI)이다.

[Model 3]

$$y_{i,t} = \alpha + \beta_1 CPI_{i,t-1} + \beta_2 \Sigma MKT_{i,t-1} + \beta_3 \Sigma MKT \times CPI_{i,t-1} + \beta_4 \Sigma Control_{i,t-1} + \varepsilon_{i,t-1}$$

## V. 분석결과

### 1. 기초 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기초 통계 분석 결과로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관측표본 등을 정리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제도 순응 수준을 나타내는 CSR 점수(CSR)는 평균이 39.088, 표준편차가 13.062이며, 최소값이 11.69, 최대값은 89.298이다. 중국의 지역별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는 평균 4.356, 표준편차 1.709이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7.04의 값을 갖는다. 중국의 31개 성·시별 제도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시장화지수(MKT)는 평균이 7.545, 표준편차는 1.799의 값을 갖고, 최소값은 -0.230, 최대값은 10.00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수들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성·시별 제도적 압력 수준을 나타내는 CSR 관련 뉴스 노출 빈도(News)는 평균이 1.094이고, 표준편차가 0.431이며, 최소 0.000에서 최대 1.881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수준인 GDP는 최소 3.994에서 최대 5.111의 값을 갖고, 평균이 4.73, 표준편차가 0.216이다. 중국의 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EXrate)은 최소 0.143, 최대 0.164의 값을 갖고, 평균이 0.154, 표준편차는 0.007이다.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총매출액(Tsales)은 최소 9.226, 최대 0.706의 값을 갖고, 평균이 9.226, 표준편차가 0.706으로 나타났다. 환율(Exrate)은 평균이 0.154, 표준편차가 0.007이며, 최소값은 0.143, 최대값은 0.165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지분비율(Tequity)은 최소 5.309에서 최대 12.311이며, 평균이 9.257, 표준편차가 0.581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토빈Q값(TobinQ)은 평균 2.508, 표준편차가 5.271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007에서 최대 349.007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gt; 기초통계 분석 결과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Observations
CSR	39.088	13.062	11.690	89.298	5,453
CPI	4.356	1.709	0.000	7.040	18,278
MKT	7.545	1.799	-0.230	10.000	21,437
News <sup>a</sup>	1.094	0.431	0.000	1.881	24,318
GDP <sup>a</sup>	4.418	0.343	2.596	4.953	24,897
EXrate	0.154	0.007	0.143	0.165	24,897
Tsales <sup>a</sup>	9.226	0.706	3.928	12.459	25,861
Tequity <sup>a</sup>	9.257	0.581	5.309	12.331	25,588
TobinQ	2.508	5.271	0.007	349.007	23,811

▪ <sup>a</sup> Natural log of total amount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른 부패 수준, 지역별 부패 수준에 따른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각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VIF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주요 변수인 CSR지수(CSR)가 부패 지수(CPI) 및 시장화지수(MKT)와 각각 -0.217과 0.225의 값을 갖고, 부패 지수(CPI)가 시장화지수(MKT)와 -0.491의 상관계수를 보여 주요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에서 CSR 뉴스 노출 빈도(News)가 시장화지수(MKT) 및 부패지수(CPI)와 각각 0.450과 -0.462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국민총생산(GDP)이 시장화지수(MKT)와 각각 0.704의 상관계수를 갖고, 총매출액(Tsales)이 CSR지수(CSR)와 0.517, 모기업지분비율(Tequity)이 총매출액과 0.807로 다소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VIF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결과 VIF 값은 전체적으로 1.28에서 3.78의 값을 갖고, 평균 VIF 값이 2.52로 다중공선성 판단 기준인 4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tudenmund 2001). 분석결과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 사이에서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조절 변수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일부 조절변수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높은 상관관계는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Variable	1	2	3	4	5	6	7	VIF
1. CSR	1.000							
2. CPI	-0.217***	1.000						2.39
3. MKT	0.225***	-0.491***	1.000					3.37
4. News	0.277***	-0.462***	0.450***	1.000				1.71
5. GDP	0.141***	0.023***	0.704***	0.315***	1.000			2.55
6. EXrate	0.060***	-0.137***	0.018***	-0.070***	0.087***	1.000		1.32
7. Tsales	0.517***	-0.126***	0.079***	0.122***	0.045***	0.008	1.000	3.78
8. Tequity	0.579***	-0.172***	0.107***	0.203***	0.048***	-0.011*	0.807***	3.76
9. TobinQ	-0.181***	-0.011	0.037***	0.036***	-0.005	-0.051***	-0.291***	1.28
	<b>8</b>	<b>9</b>						
8. Tequity	1.000							3.76
9. TobinQ	-0.289***	1.000						1.28
<b>Mean VIF</b>								2.52

\*\*\*, \*\*, \* indicate significance level at 1%, 5%, 10%

## 2.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가설 H1부터 H3의 패널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가설 H1의 회귀분석 결과인 Model 1을 살펴보면 부패수준은 제도 발전 수준과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제도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lt;표 3&gt; 고정효과 회귀분석(Fixed-Effects Regression) 결과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CPI	CSR (Step1)	CSR (Step2)	CSR (Step3)
MKT	-0.200*** (0.006)		1.775*** (0.170)	2.180*** (0.281)
CPI		-1.681*** (0.211)	-0.940*** (0.220)	-0.084 (0.462)
MKTxCPI				-0.138** (0.070)
News	0.038*** (0.011)	3.504*** (0.303)	2.294*** (0.320)	2.172*** (0.317)
GDP	-0.174*** (0.043)	2.087* (1.219)	2.471** (1.202)	2.401** (1.189)
EXrate	-25.040*** (0.933)	135.279*** (19.765)	123.826*** (19.524)	130.273*** (19.812)
Tsales	-0.008 (0.015)	2.298*** (0.632)	1.916*** (0.624)	1.923*** (0.626)
Tequity	-0.066*** (0.018)	5.012*** (0.678)	3.618*** (0.681)	3.689*** (0.683)
TobinQ	-0.001 (0.001)	0.085*** (0.029)	0.060** (0.028)	0.061** (0.028)
Cons	11.054*** (0.168)	-57.566*** (6.501)	-55.430*** (6.414)	-59.262*** (6.557)
Prob > F	0.000	0.000	0.000	0.000
F test	98.21	21.81	22.39	22.59
sigma_u	1.480	9.961	10.389	10.400
sigma_e	0.259	4.725	4.660	4.587
rho	0.970	0.816	0.832	0.837
Observations	14,017	4,737	4,737	4,656

• 1. ( ) denotes standard deviation.

2. \*\*\*, \*\*, \* indicate significance level at 1%,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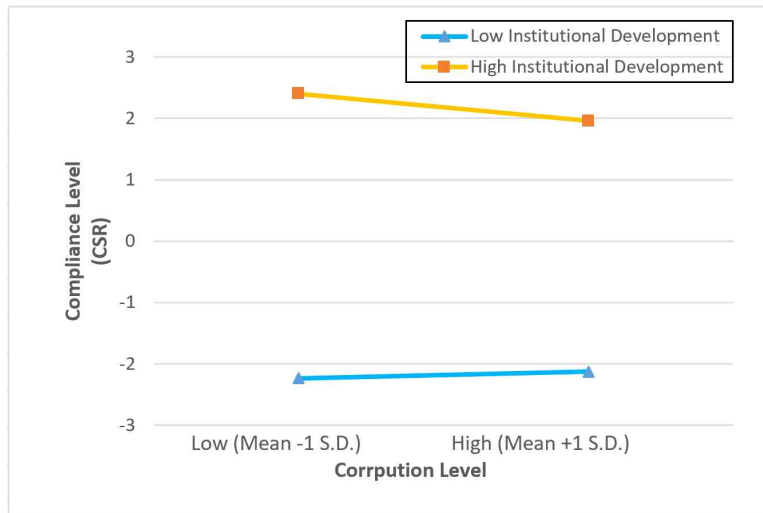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설 H2의 회귀분석 결과인 Model 2를 살펴보면 시장발전지수와 CSR활동 수준은 정(+)의 관계를 갖고, 부패지수는 CSR활동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CSR활동 수준은 높아지고,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CSR 활동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도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기업들은 CSR 활동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동 분석결과는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제도에 순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실증하는 결과로, 이는 Cuervo-Cazurra(2006)의 주장과 가설 2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가설 H3의 패널 회귀분석 결과로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동 분석 결과는 부패 수준이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패널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 수준이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 수준이 기업의 CSR 활동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Aiken & West”(1991)의 분석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림 2>는 Aiken & West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 때 기업의 순응 수준은 정(+)의 영역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며, 제도발전 낮을 때 기업은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이 부(-)의 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도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갖는다. 이는 기업들이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패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관여 수준이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패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CSR 활동 수준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곡선은 전반적으로 정(+)의 영역에서 형성되어 기업들이 긍정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 경우, 부패수준이 낮아질수록 기업들이 실질적 CSR 활동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제도 발전과 부패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그래프는 미세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의 영역에서 형성되어 있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CSR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부정적 형태의 동형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가 기업들의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구별되는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검증 결과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도발전 수준이 낮을 때 부패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CSR 활동 수준이 미세하게 우상향한다는 점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을 때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Cuervo-Cazurra 2006; Frynas 2005; Han & Yang 2020; Mauro 1995; Putrevu et al. 2012; Rodrigo & Arenas 2008; Visser 2008)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

도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전략적 목적으로 상징적 CSR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들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제도적 발전이 미비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CSR 활동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Aguilera et al. 2007). 따라서 기업은 지역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제도적 발전이 낮을수록 시민들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려는 동기로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Matten & Moon 2008).

셋째, CSR 활동은 제도적 환경이 불안정할 때 기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선호를 얻고자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orter & Kramer 2006).

넷째,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 규범과 표준(예: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ISO 26000)이 CSR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의 기업일지라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Visser 2008).

다섯째,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로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규제의 변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평판 리스크 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Epstein & Buhovac 2014).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발전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도 기업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 공백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서 언급했던 많은 선행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상징적 CSR 활동은 그 의도를 간파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 CSR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제도의 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기업의 순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체제전환 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성·시별 제도 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내 각 성·시별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지며, 제도발전 수준이 낮으면 부패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패 수준은 기업의 제도 순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순응 수준이 낮아지고, 부패 수준이 낮아 질수록 순응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가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발전 수준이 높을 때 기업들은 부패 수준에 상관없이 실질적 CSR 활동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형태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반대로 제도발전 수준이 낮을 때 부패는 기업들의 CSR 활동을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정적 형태의 동형화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발전과 부패의 관계, 제도발전과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이제까지 제도이론 관련 연구에서는 제도와 기업의 CSR 활동을 연계하여 제도발전이 기업의 행동을 실제로 바람직하게 이끄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에 노출됐을 때, 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DiMaggio & Powell 1983). 이는 부패가 만연한 환경에서 동형화가 부패적 관행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발전이 부패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동형화가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

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 내에서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상징성(Symbolic)과 실질성(Substantial) 개념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제까지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활발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Goodrick & Salancik 1996; Oliver 1991; Tan & Wang 2011), 기업의 행동 패턴을 실증분석을 통해 구분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행동을 제도발전 수준과 부패 수준에 따라 기업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대응 행동을 상징적 순응(디커플링)과 실질적 순응 개념을 사용하여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이 부패에 동형화하는지, 또는 제도적 순응에 동형화하는지 살펴보므로써,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CSR의 역할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제도 연구(Clark et al. 2018; Xie & Li 2018)를 동일 국가 내 지역 단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시장 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동·남부 대도시를 시작으로 중부, 서부에 순차적으로 도입·적용되어 발전하고 있다(Wang & Juslin 2009; Lin 2010). 따라서 중국은 지역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제도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Zhu & Sarkis 2007), 지역별 제도발전 수준에 따라 부패수준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제도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부패 정도에 따른 기업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차 데이터의 특성상 기업이 무슨 의도로 순응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기업의 순응 행동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 부존도, CEO를 포함한 경영의 의도나 정치성향, 기업의 경영 상황 등 내부요인들을 변수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 기업의 내부 상황이 심도 있게 반영된 기업의 순응 행동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체제전환 국가이자 이머징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니만큼 선진국이나 기타 서방 경제체제의 국가에 적용·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제 수준이 서방국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서방세계의 자유경제 시스템과 운영방식과 차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은 G2로서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대외 교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 운영 형태와 기업의 대응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행동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정 요소가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 주제는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ESG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인들이 제도의 발전 및 기업의 행동(CSR활동 또는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3대 기둥인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지적 요소가 ESG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대응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동 요인들을 활용한 국가별 사례 비교 또는 특정 산업 내 기업 간 차이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둘째, 부패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기업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패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기업의 순응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부패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Tanziand & Davoodi 1998), 고위 정부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부패와 일상적인 소규모 부패가 기업의 ESG 및 CSR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패 유형 연구를 기반으로 부패의 규모와 빈도를 국가, 산업, 기업 등 3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부패의 크기가 기업의 순응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수준에서 제도발전 수준과 기업 행동을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제도적 환경에서 부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서로 다른 국가 규제 및 부패 수준에 따라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제도발전이 기업의 혁신 행동과 부패 관행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 연구할 수 있다. 부패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혁신이 더딜 수 있지만, 제도가 발전하면 기업들이 부패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Mauro 1995). 따라서 기업의 혁신 성향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환경의 발전이 어떻게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Rose-Ackerman(1999)의 산업별 부패 연구를 확장하여, 산업별로 부패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산업이 부패에 더욱 취약한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 기반 산업, 금융 산업, 기술 산업에서 부패에 대한 순응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상 파생 가능한 후속연구 주제들은 기업, 부패, 그리고 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기업의 ESG 정책 및 CSR 활동 수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Aguilera, R. V., D. E. Rupp, C. A. Williams and J. Ganapathi (2007). "Putting the S Back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Multilevel Theory of Social Change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2. No. 3, pp. 836-863.
- Aiken, L. S. and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Bardhan, P.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5. No. 3, pp. 1320-1346
- \_\_\_\_\_ (201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Concepts & Contexts." Michael Johnston (ed.). *Political Corruption*. New York: Routledge, pp. 321-338.
- Barkemeyer, R., L. Preuss and M. Ohana (2018). "Developing Country Firms and the Challenge of Corruption: Do Company Commitments Mirror the Quality of National-level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90, pp. 26-39.
- Bartlett, C. A. and S. Ghoshal (1989). *Managing Across Borders: The Transnational Solution*. Brigh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Berrone, P., A. Fosfuri, L. Gelabert and L. R. Gomez Mejia (2013). "Necessity as the Mother of 'Green' Inventions: Institutional Pressures and Environmental Innov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4. No. 8, pp. 891-909.
- Chan, C. M., T. Isobe and S. Makino (2008). "Which Country Matters?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Foreign Affiliate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9. No. 11, pp. 1179-1205.
- Chen, H., F. Schneider and Q. Sun (2018). *Siz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China's Provinces: the MIMIC Approach* CESifo Working Papers, No. 7175. Munich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Research.
- Choi, J. M., C. Jiang and O. Shenkar (2015).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and Firm Performance: The Case of China's Province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Vol. 11. No. 4, pp. 679-710.
- Clark, D. R., D. Li and D. A. Shepherd (2018). "Country Familiarity in the Initial

- Stage of Foreign Market Sele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4, pp. 442-472.
- Collier, M. W. (2002). “Explaining Corruption: An Institutional Choice Approach.”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 38. No. 1, pp. 1-32.
- Cuervo-Cazurra, A. (2006). “Who Care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7, pp. 807-822.
- \_\_\_\_\_ (2014). *Transparency and Corruption*.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and Institutional Transparen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lmas, M. A. and M. J. Montes Sancho (2010). “Voluntary Agreements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Symbolic and Substantive Coope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1. No. 6, pp. 575-601.
- Deng, P. and S. Zhang (2018).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of Emerging Market Firms: Focusing on Chinese SM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92, pp. 279-289.
- Deng, Z., R. J. B. Jean and R. R. Sinkovics (2018). “Rapid Expansion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Across Institutional D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8, pp. 1010-1032.
- DiMaggio, P. J. and W.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2, pp. 147-160.
- Egger, P. and H. Winner (2006). “How Corruption Influen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 Panel Data Stud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4. No. 2, pp. 459-486.
- Epstein, M. J. and A. R. Buhovac (2014). *Making Sustainability Work: Best Practices in Managing and Measuring Corporat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Austin: Greenleaf Publishing.
- Fan, G. and X. Wang (2010). *Marketisation Index of China's Province: NERI Report 2010*. Beijing: Economic Science Press.
- Frederick, W. C. (1994). “From CSR 1 to CSR 2: The Maturing of Business and Society Thought.” *Business and Society*. Vol. 33. No. 2, pp. 150-164.
- Frynas, J. G. (2005). “The False Developmental Promi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Multinational Oil Companies.” *International Affairs*. Vol. 81. No. 3, pp. 581-598.
- Gatti, L., B. Vishwanath, P. Seele and B. Cottier (2019). “Are We Moving Beyond

- Voluntary CSR? Exploring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Mandatory CSR Resulting from the New Indian Companies A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60, pp. 961-972.
- Gelman, A. (2007).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rick, E. and G. R. Salancik (1996). “Organizational Discretion in Responding to Institutional Practices: Hospitals and Cesarean Birth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1, pp. 1-28.
- Greenwood, R., R. Suddaby and C. R. Hinings (2002). “Theorizing Change: The Role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alized Field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5. No. 1, pp. 58-80.
- Gujarati, D. N. (2021). *Essentials of Econometric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upta, S., H. Davoodi and R. Alonso-Terme (2002).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s of Governance*. Vol. 3, pp. 23-45.
- Habib, M. and L. Zurawicki (2001). “Country-level Investments and the Effect of Corruption—Some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0. No. 6, pp. 687-700.
- Han, B. S. and W. Y. Yang (2020). “The Effect of Corrup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Vol. 16. No. 6, pp. 749-765.
- Hillman, A. J. and G. D. Keim (2001). “Shareholder Value, Stakeholder Management, and Social Issues: What’s the Bottom Lin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2. No. 2, pp. 125-139.
- Hellman, J. S., G. Jones, M. Schankerman and D. Kaufmann (1999). *Measuring Governance, Corruption, and State Capture: How Firms and Bureaucrats Shap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ransit*. Washington: The World Bank.
- Henisz, W. J. and B. A. Zelner (2005). “Legitimacy, Interest Group Pressures, and Change in Emergent Institutions: The Case of Foreign Investors and Host Country Governmen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0. No. 2, pp. 361-382.
- Huber, P. J. (1967). “The Behavior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Under Nonstandard Conditions.” *Proceedings of the Fifth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Vol. 1. No. 1, pp. 221-233.

- Huntington, S. P. (1968). "Modernization and Corrupti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pp. 59-71.
- Kaufmann, D. (1997). "Corruption: the Facts." *Foreign Policy*. Vol. 107. Summer, pp. 114-131.
- Khanna, T. and K. Palepu (1997). "Why Focused Strategies may be Wrong for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5, pp. 41-54.
- \_\_\_\_\_ (2000). "Is Group Affiliation Profitable in Emerging Markets? An Analysis of Diversified Indian Business Groups." *The Journal of Finance*. Vol. 55. No. 2, pp. 867-891.
- Kim, H. J. and J. Y. Song (2017). "Filling Institutional Voids in Emerging Economies: The Impact of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Business Groups on M&A Deal Abandon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8. No. 3, pp. 308-323.
- Knetter, M. M. (1989). "Price Discrimination by US and German Export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1, pp. 198-210.
- Koning, M., G. Mertens and P. Roosenboom (2018). "Drivers of Institutional Change Around the World: The Case of IF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3, pp. 249-271.
- Kostova, T., K. Roth and M. T. Dacin (2008). "Institutional Theory in the Stud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Critique and New Direc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No. 4, pp. 994-1006.
- Kouznetsov, A., S. Kim and C. Wright (2019). "An Audit of Received International Business Corruption Literature for Logic, Consistency, Completeness of Coverag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25. No. 4, pp. 1-19.
- Kurtzman, J., G. Yago and T. Phumiwasana (2004). "The Global Costs of Capacity." *M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 46. No. 1, pp. 38-44.
- Lambsdorff, J. G. (2003). "How Corruption Affects Persistent Capital Flows." *Economics of Governance*. Vol. 4. No. 3, pp. 229-243.
- Lamin, A. and S. Zaheer (2012). "Wall Street vs. Main Street: Firm Strategies for Defending Legitimacy and Their Impact on Different Stakeholders." *Organization Science*. Vol. 23. No. 1, pp. 47-66.
- Lin, L. W. (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No. 1, pp. 1-37.

- Lotila, P. (2010). "Corporate Responsiveness to Social Pressure: An Interaction-based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94. No. 3, pp. 395-409.
- Luo, Y. (2005).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f Corrupt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Vol. 1. No. 1, pp. 119-154.
- \_\_\_\_\_ (2006). "Political Behavior, Social Responsibility, and Perceived Corruption: A Structuration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7. No. 6, pp. 747-766.
- Marquis, C. and C. Qian (20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in China: Symbol or Substance?" *Organization Science*. Vol. 25. No. 1, pp. 127-148.
- Matten, D. and J. Moon (2008). "'Implicit' and 'expl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No. 2, pp. 404-424.
-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pp. 681-712.
- Méon, P. G. and L. Weill (2010). "Is Corruption an Efficient Grease?" *World Development*. Vol. 38. No. 3, pp. 244-259.
- Meyer, J. W. and B. Rowan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2, pp. 340-363.
- Mitchell, R. K., B. R. Agle and D. J. Wood (1997). "Toward a Theory of Stakeholder Identification and Salience: Defining the Principle of Who and What Really Coun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o. 4, pp. 853-886.
- Murphy, K. M., A. Shleifer and R. W. Vishny (1993). "Why is Rent Seeking so Costly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No. 2, pp. 409-414.
- Nguyen, Q., T. Kim and M. Papanastassiou (2018). "Policy Uncertainty, Derivatives Use, and Firm-level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1, pp. 96-126.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1, pp. 97-112.
-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Vol. 16. No. 1, pp. 145-179.
- Petrou, A. P. and I. C. Thanos (2014). "The 'Grabbing Hand' or the 'Helping Hand' view of Corruption: Evidence from Bank Foreign Market Entr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9, pp. 444-454.
- Pinkham, B. C. and M. W. Peng (2017). "Overcoming Institutional Voids via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8. No. 3, pp. 344-359.
- Porter, M. E. and M. R.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84. No. 12, pp. 78-92.
- Putrevu, S., J. McGuire, D. S. Siegel and D. M. Smith (201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rresponsibility, and Corruptio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5. No. 11, pp. 1618-1621.
- Rathert, N. (2016). "Strategies of Legitimation: MNEs and the Adoption of CSR in Response to Host-country Institu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7. No. 7, pp. 58-879.
- Rodrigo, P. and D. Arenas (2008). "Do Employees Care about CSR Programs? A Typology of Employees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3, pp. 265-283.
- Rose-Ackerman, S. (1999). "Political Corruption and Democracy."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pp. 363-378.
- Sarkis, J., P. Gonzalez-Torre and B. Adenso-Diaz (2010). "Stakeholder Pressure and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ractices: The Mediating Effect of Training."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 28. No. 2, pp. 163-176.
- Scott, W. R. (2004). "Institutional Theory." Ritzer (ed.).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_\_\_\_\_ (2013).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deas, Interests, and Identiti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hi, W. S., S. L. Sun, D. Yan and Z. Zhu (2017). "Institutional Fragility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8. No. 4, pp. 452-476.
- Shleifer, A. and R. W. Vishny (1993). "Corrup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8. No. 3, pp. 599-617.
- Spencer, J. and C. Gomez (2011). "MNEs and Corruption: The Impact of National

- Institutions and Subsidiary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2. No. 3, pp. 280–300.
- Steidlmeier, P. (1999). “Gift Giving, Bribery and Corruption: Ethical Management of Business Relationship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20. No. 2, pp. 121–132.
- Stevens, C. E., E. Xie and M. W. Peng (2016). “Toward a Legitimacy-based View of Political Risk: The Case of Google and Yahoo in China.”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37. No. 5, pp. 945–963.
- Studenmund, A. H. (2001). *Using Econometrics, A Practical Guide*, Addison Wesley.
- Susan, R. A.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 J. and L. Wang (2011). “MNC Strategic Responses to Ethical Pressure: An Institutional Logic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98. No. 3, pp. 373–390.
- Tanzi, V. and H. Davoodi (1998).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The Welfare State,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Selected Papers from the 53r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pringer: Japan, pp. 41–60.
- Teorell, J. (2007). *Corruption as an Institution: Rethinking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Grabbing Hand*. QoG Working Paper Series. No. 5.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pp. 1–24.
- Tian, Q., Y. Liu and J. Fan (2015). “The Effects of External Stakeholder Pressure and Ethical Leadership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Journal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Vol. 21. No. 4, pp. 388–410.
- Tolbert, P. S. and L. G. Zucker (1999).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stitutional Theory.” Clegg, S. R., S. Clegg and C. Hardy (Eds.). *Studying organization: theory and metho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reisman, D.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No. 3, pp. 399–457.
- Uhlenbruck, K., P. Rodriguez, J. Doh and L. Eden (2006). “The Impact of Corruption on Entry Strategy: Evidence from Telecommunication Projects in Emerging Economies.” *Organization Science*. Vol. 17. No. 3, pp. 402–414.
- Visser, W.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rew Crane, Abigail McWilliams, Dirk Matten, Jeremy Moon, Donald

- S. Siegel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73-499.
- Wang, L. and H. Juslin (2009). "The Impact of Chinese Cul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Harmon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8. No. 3, pp. 433-451.
- Wei, S.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82. No. 1, pp. 1-11.
- White, H. (1980).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Vol. 48. No. 4, pp. 817-838.
- Wu, Z. and R. Salomon (2017). "Deconstruct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Regulatory Enforcement Actions against Foreign Bank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8. No. 7, pp. 837-861.
- Xie, Z. and J. Li (2018). "Exporting and Innovating among Emerging Market Firms: The Moderating Role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2, pp. 222-245.
- Young, S. L., C. Welter and M. Conger (2018). "Stability vs. Flexibility: The Effect of Regulatory Institutions on Opportunity Typ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9. No. 4, pp. 407-441.
- Zhu, Q. and J. Sarkis (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Institutional Pressures on Emergent Green Supply Chain Practices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Vol. 45. No. 18-19, pp. 4333-4355.

## 2. 기타

-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1970.
- 외교통상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www.mofa.go.kr/>. (2024년 9월 15일 검색)
-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www.kita.net/>. (2024년 9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11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11월 29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16일 |

| ABSTRACT |

**The Impact of Corruption on Firm's Compliance  
Behavior a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Positive and Negative Isomorphism**

**Woo-Young Yang**

(Dept. of International Trade, Kunsan National University)

**Byoung-Sop Ha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how corruption affects firms' behavior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orruption, also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corruption in firms' compliance behavior follow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ar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the corruption level,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 target country for analysis is China, and the analysis divided the target region into 31 provinces and citie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observation period is a total of 8 years from 2009 to 2016, and 2,597 samples of 863 firms listed in the Chinese A market were obtained.

The study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is higher, the corruption level is lowe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a firm's compliance level was higher with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s the corruption level was lower. In general, corruption causes firms to engage in illegal actions, thereby degrading a firm's image, and acting against the institution negatively affects a firm's financial performance by incurring institutional punishment. Therefore, it seems that firms are increasing the

CSR activities level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corruption.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how firms respond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orruption level, and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firms' behavior patterns depending o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by subdividing the target region into 31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by demonstrating the firms' response behaviors according to the corruption level in each region.

- Key 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pliance, Corruption, Institutional Development, China